여천NCC, 프로필렌 111만톤으로…

부텐을 원료로 사용 14만톤 증설 … 700억원 투입 2015년 완공 예정

여천NCC(대표 박종국·정진원)가 프로필렌(Propylene) 생산능력을 111만톤으로 확대한다.

여천NCC는 2014년 상반기에 여수산업단지 제1사업장에서 프로필렌 14만톤 증설에 착수한다고 8월28일 발표했다.

700억원을 투입해 2015년 완공할 예정이며, 증설 이후에는 프로필렌 총 생산능력이 111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.

여천NCC는 미국기업과 신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.

여천NCC 관계자는 "신기술을 채용하면 부가가치가 낮은 부텐(Butene) 혼합물을 에틸렌(Ethylene)과 촉매 반응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의 프로필렌으로 전환할 수 있다"고 밝혔다.

또 "여천NCC는 1999년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의 자율 빅딜에 의해 탄생했다"며 "규모화 실현 및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"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8/29>